I. 세계평화공원의 대내외적 의미

■ 대내적 의미

○ 융합/복합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

○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사례

○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조성함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가는 그린데탕트(Green Detente)의 실현 가능

■ 대외적 의미

○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역사의 현장

○ 휴전선이 일부 허물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일 수 있어 전쟁의 큰 상처를 치유하는 세계평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.

○ 따라서 동북아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.

II. 세계평화공원의 사례

■ 노르웨이-스웨덴 국경에 있는 모로쿨리엔 평화공원(Morokulien Peace Park)

○ 1914년 8월 두 나라는 100년의 평화를 기념하면서 평화공원을 조성

○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이곳은 2차 세계 대전 포로교환의 장소와 양국주민들의 공동결혼식으로도 활용됨.

○ 모로쿨리엔 여권을 발급하여 전세계 국민들이 모로쿨리엔 명예시민이 되게 하여 관광 산업화 함.

■ 독일의 그뤼네스반트(Grunes Band)

○ 통일 이후 동·서독 옛 국경지역을 국가적인 생태 및 환경교육, 관광지역으로 탈바꿈을 시킴.

- 스칸디나비아~발칸~유럽대륙을 잇는 대륙 생태 띠를 조성하여 국제적 환경운동의 거점으로 성장
- 자전거길,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
- 환경운동가들의 도움으로 자연그대로의 환경보전 지속

III. 국제사회의 반응

■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과거 사례

○ DMZ세계평화공원의 최초의 공식적 제안은 1988년 노태우 UN총회 연설에서 'DMZ 내 평화시' 건설 제의

○ 1991년 12월 '남북기본합의서' 채택이후 정부부처·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유관 연구와 추진방향 제시, 1992년 유엔환경계획(UNEP), 세계자연보존연맹(IUCN)에서 DMZ에 '국제자연공원 조성' 제안, 2001년 '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' 수립

○ 2004년 유네스코(UNESCO) 및 세계박물관·유산위원회(ICOMOS)에서 DMZ 세계유산 등재 제안, 2008년~2014년 'DMZ 평화적 이용'을 국정 과제로 설정, 부처별 관련계획 수립

○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, 'DMZ 세계평화공원 조성'계획 추진

■ 국제사회의 반응

○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연설에서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뜻을 밝힘. 이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(2013년 8월 23일),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,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(6월 27일) 등을 통해 유엔 및 주요국의 지지를 이끌어 냄

○ 국제사회와 함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13년 7월 27일 6·25전쟁정전협정 기념식에서 모든 6·25전쟁 참전국들의 참여를 제안

○ 유엔사령부와는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평화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기술적 사안들을 협의계획

○ 2013년 8월 8·15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의

■ 국제사회의 지원방안

○ 총론적 차원에서는 국제사회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. 그러나 세부적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

○ 그리고 북한이 군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평화공원조성 협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됨. 김대중 정부·노무현 정부(2007년 남북정상회담)에서도 평화공원의 구상이 검토되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음.

Ⅳ.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유도방안

■ 총론

○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컨텐츠가 존재해야 함.

○ '한반도의 화약고', '동서냉전시대의 마지막 상징'으로 불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인 DMZ가 세계평화의 상징적 지역으로 세계인들의 화제 거리가 되어야 함.

■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컨텐츠 사례

○ 시설물

- 평화예술의 전당, 남북놀이마당, 이산가족만남의 장소, 한반도 대장터, 남북 공동유해발굴단 사무소, 생태전시관 등

○ DMZ전체를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적 역사문화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

- 국토의 남북 축인 백두대간, 도서연안의 생태축과 더불어 한반도의 '핵심 생태축'으로서 DMZ를 연속된 생태 네트워크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.
- 더 나아가 유럽~시베리아, 중국대륙과 동북아시아~DMZ 및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하는 슈퍼 생태 네트워크 구축

○ DMZ의 자연 생태적 우수성

- 사향, 노루, 산양, 삵 등과 같은 약 70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을 포함하여 약 3,000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(寶庫)
- 한반도 동식물 종의 50%가 서식
- 우포늪, 순천만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생태관광지
-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 25대 명소
- 습지와 식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현재도 매년 6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곳

■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비전과 목적

○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

○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목적을 정하고,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

○ 이러한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의 개발

비전, 목적, 전략과 수단

비전 동북아평화, 세계평화

목적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형성을 통한 평화적 통일
남북한 간의 관계증진과 세계평화의 가교역할

장기적 전략

- 정치(군사): 남북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
- 경제: 남북한의 경제발전
- 사회: 남북한 간의 사회교류 활성화
- 문화(역사):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

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분야별 수단

■ 정치분야

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장기적 틀 안에서 국제외교 강화 및 주도적 역할 필요. 북한의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지속 등.

○ 대 중국관계

-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, 통일한국이 더 큰 방파제(buffer zone)역할을 함.
- 통일한국은 일본보다 중국에 더 가까움을 강조.
- 한·중교역액은 벌써 한·미교역액의 두 배. 한국의 대중수출의 반 이상이 중간재이며 중국은 한국의 중간재를 가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달성. 특히 한국 주도의 통일은 한반도 안정을 가져와 중국의 발전에도 도움.
- 통일 후 국경관리 철저 강조: 불필요한 국경분쟁이나 민족분쟁은 없을 것임을 강조. 중국은 소수민족의 분쟁에 민감하므로 통일한국은 영토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을 것임.

○ 대 미국관계

-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대로 한·미간 동맹 강화
- 보편적 인권의 강조

○ 대 일본관계
- 남북통일로 동북아 안정을 강조: 불안요인인 북한 소멸
- 통일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므로 일본과의 교류협력 강화

○ 대 러시아관계
- 통일한국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수입 등 러시아와 교류확대
- 시베리아 철도건설 등 극동지역의 개발에 도움

■ 경제분야

○ DMZ 지역을 생태평화공원화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
- DMZ내부는 그대로 두고(통로 개발정도) 전망대 등을 통해 관광할 수 있도록 함. 예) 중국의 만리장성 관광
- 올레길 조성

○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발 아이디어 공모
- 국내에 입국하는 천만 명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
-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면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가능.

○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센터 구축

○ 해외투자설명회 개최
- 세계평화를 위해 세계인이 공동 투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각국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설명회 개최. 세계적 실물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도 상당한 관심을 보임.
- 개성공단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남북 간 3통(통행, 통신, 통관)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남한 쪽 세계평화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.
- 동서평화고속도로(남쪽접경지역간 동서방향 광역도로망) 건설로 DMZ 접근성을 높임.

■ 사회분야

○ 정치·군사와 관계없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국제기구의 유치
- 생물다양성 과학기구(IPBES;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)
- 2014년 9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“유엔생물다양성협약 총회”에서 의제로 제시하여 국제적인 호응을 얻을 필요가 있음.

○ 학술대회개최 및 연구협력
- 한국DMZ학회 등과 연계하여 세계적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
-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(PRIO)와 연구협력

○ 일반들의 관심증대 노력
- 세계평화공원의 여권을 발급하여 세계인들에 대한 명예시민증 부여
- 평화를 염원하는 공동결혼식장으로 활용
- 세계평화공원 개막식에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의 지도자들을 초청

■ 문화(역사)분야

○ 역사박물관의 건축
- 사례: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

○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

○ 한류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전시회, 음악회 등 개최

○ 남북 간 평화도서관 건축